

보도시점 2024. 7. 25.(목) 15:00 배포 2024. 7. 25.(목) 14:00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 7월 25~26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는 7월 25(목)~26일(금)(현지 기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Korea-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rade and Innovation Forum)」을 개최한다.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동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멕시코시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동 포럼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세미나), 1:1 기업상담회,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기업 간 투자 및 기술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1:1 기업상담회를 통해 업무협약(MOU) 체결, 수출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포럼은 금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자 한국의 중남미 주요 무역 상대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된다. 먼저, 스마트 농업, 스마트 공급망,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를 주요 주제로 관련 한국과 중남미 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 기업상담회가 지난해 대비 연장(1일 → 1.5일)되어 진행되며, 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경진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1:1 기업상담회(수출)의 경우, 참여 기업 대부분이 '22년 이후 중남미 수출 실적이 없는 바, 금번 기업 상담회를 계기로 신규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프로그램별 한국 측 참석기업

- (세미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비전, CJ 제일제당, 엘에스 엠트론, 호패 등 8개사(社)
- (1:1 상담회) 중소·중견기업 23개사(社) (수출상담 13개사(社), 수입상담 10개사(社))
- (경진대회) 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5개사(社)

이번 포럼에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 겸 개발산업 통상서비스부 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23개국에서 400여개 기업이 참석하는 등 총 참석자는 56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동 분야에서 기업 투자 등 민간 교류 촉진,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공급망 재편 등 추세 속에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활로 개척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 기업 생태계 모든 부분에서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유경화 (helen1212@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 일정

1일차(7.25.(목))		
09:30 -10:15	개회식 개회사 (부총리, IDB 총재, 수출입은행장, 코트라 본부장, 브라질 부통령)	
10:15 -10:30	기조연설 한-브라질 간 무역과 혁신의 길- Ricardo Alban, 브라질 국가산업연맹 회장	
10:30 -11:20	분야별 세미나	< (세션 1) 한-중남미 무역과 혁신의 길 > 사회: Fabrizio Opertti IDB 무역섹터, Manager 패널: Dilian Francisca Toro 콜롬비아 바예델카우카 주지사 Ailtom Nascimento 브라질 Stefanini Group, 부사장 이호승 前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기철 한화비전 전략·기획실장
11:20 -11:40		< 특별발표 > '05년이후 한국-IDB 파트너십- Matias Bendersky, IDB 대외협력부, Manager
11:40 -12:30		< (세션 2)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접근 및 지속가능한 농업 : 중남미와 한국의 시각 > 사회: Maher Guedes IDB Invest, 농업경영 수석전문가 패널: Yoselyn Malamud 페루 Viru Group, CEO Fernando Pressotto 브라질 Sempre, CEO Francisco Jardim 브라질 SP Ventures, General Partner 김주찬 브라질 LS Mtron, 회장 최해룡 CJ 제일제당, 미주 Bio Business CEO
11:15 -12:15		< (세션 3) 공공·민간 파트너십: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기회 확대 > 사회: Marcos Siqueira Moraes IDB PPP 부서, 수석전문가 패널: Lady Katherin Sandoval Chacon 콜롬비아 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 프로젝트 매니저 Marcus Cavalnati 브라질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 Special Secretary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승환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지원공사 (KIND), 인프라개발실 실장
13:30 -15:00	VIP 오찬/ 비즈니스 오찬	
11:30 -18:30	1:1 비즈니스 상담회	
15:00 -18:00	투자유치 설명회(Start-up Pitch Day) - 기술 경진대회 및 시상식	
20:30 -10:30	환영 만찬(기재부 주재)	

2일차(7.26.(금))		
10:15 -11:15	분야별 세미나	< (세션 4)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위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 공급망 >
		사회: Juan Parodi IDB Invest, 제조업 분야, Lead officer
		패널: Andrea Terranova 브라질 UCB Power, CFO
		César Augusto Solano 파나마 Grand Bay International, CEO
		David Brogeras IDB Invest, 디지털전환팀, Head
		Mario Augusto Santos Laffitte 삼성전자 브라질법인, 부사장
		문성협 현대자동차, 책임
11:15 -12:15		< (세션 5)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 한국과 중남미 지역 혁신자를 위한 새로운 경계>
		사회: Marcelo Cabrol IDB Lab, Unit Chief of SKI
		패널: 김종갑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GDIN), CEO
		Bruno Batavia 브라질 Valor Capital, 신기술 담당 국장
		심재훈 호패, CEO
12:30 -14:00		Guillermo Villanueva 아르헨티나 Extrimian, CEO
		VIP 오찬(수출입은행 주재) / 비즈니스 오찬
10:00 -18:00	1:1 비즈니스 상담회	
14:30 -18:30	투자유치 설명회(Start-up Pitch Day) - 기술 경진대회 및 시상식	

-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실제 개회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 회 사

2024. 7. 25.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상 목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bom 지아(Bom Jia), 부에노스 디아스(Buenos dias)!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님,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미주개발은행 총재님,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님,
정외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한국과 중남미 기업인 여러분,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첫 번째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 기업인, 중남미 정부 관제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과 중남미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두 번째 포럼의 첫 장을 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 한-중남미 협력 경과

한-중남미 간 본격적인 정상외교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10배 이상,
한국의 중남미 직접투자 규모는 2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05년에는 미주개발은행(IDB),
‘20년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여,
중남미 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도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중남미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 국교를 수립하는 등
한국과 중남미 관계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3 한-중남미 협력 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중남미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아가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향후 한-중남미 협력 방향을
세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공급망 재편 추세에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중남미 지역은
풍부한 자원 뿐만 아니라 두터운 중산층과 젊은 인구를 가진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전기차(멕시코), 광물(아르헨티나, 칠레), 섬유(과테말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제조업과 풍부한 자원,
한국의 뛰어난 IT와 기술력을 활용해
상호보완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등
기업 생태계 모든 부문에서
한-중남미 간 네트워킹과 기술 교류·협력,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기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이자
거대한 탄소흡수원인 아마존이 있는 중남미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수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태양광, 그린수소 등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 중이며,
칠레와 한국 정부는
그린수소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한-중남미 간 청정에너지 공급과 기술협력이
중남미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탈탄소화 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과 중남미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과 협력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정부는 개발 경험 공유 및 개발 자원 지원 등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뤄가고자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올해 1월 신산업정책을 발표하는 등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 및 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그간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뤄가고자 합니다.

또한, 한-IDB 신탁기금을 통해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우수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양허성 차관인 EDCF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개발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브라질에는 “오래된 냄비가 좋은 음식을 만든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 간 지난 60여년의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층 더 긴밀하고,
공고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포럼이 한-중남미가 중장기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이뚜 오브리가두(Muito Obrigado),

무차스 그라시아스(Muchas gracias)!